

2014년 4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我々が、忘れてしまったこと

우리는
我々は

내적인 성장이나 영혼의 가치가
内的な成長や、魂の価値が

상장이나 훈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賞状や、勲章より、はるかに重要だということを

잊어버린다. 이것은 작은 촛불을
忘れてしまった。これが小さなろうそくの火を

햇살보다 더 밝다고 여기는
太陽の光より、さらに明るく思う

것과 같다.
のとおなじだ

- 레프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중에서 -
- レフ・トルストイの〈生きていく日々のための勉強〉より -

* 한 사람의 내적 성장과
* 一人の内的成長と

그 영혼의 가치는 모든 가치를 뛰어 넘습니다.
その魂の価値は、すべての価値を乗り越えます

영터리 상장이나 훈장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見かけの賞状や、勲章に比較できません

태양에도 견줄 수 없고, 우주와도 바꿀 수
太陽にも比べることができず、宇宙とも変える

없습니다. 그 가치를 잊어버리면
ことができません。その価値を忘れれば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全てのことを失ってしまいます

잊어버리다
[타동사] 全部忘れる; すっかり忘れてしまう; 失念する.

상장 (賞状)

[명사] 賞状.

훈장 (勲章)

[명사] 勲章.

촛불

[명사] ろうそくの火.

뛰어넘다

[타동사]

(장애 등을) 飛び越える; 飛び越す; 乗り越える.

(순서 따위를) (順序などを) 飛ばす; 抜かす.

영터리

[명사]

はったり屋; ほら吹き.

見かけ倒し; でたらめ; へぼ[속어].

あらまし; 大体の輪郭.

견주다

[타동사]

比較する; 比べ合わせる; なぞらえる; 引き当てる.

競う; 張りあう.

2014년 4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まだ行くべき道は遠い

과학은 미완성이다.
科学は未完成だ

과학이란 원래 근사적인 방법을 축적하면서
科学とは本来、近似的な方法を蓄積しながら

완전하고 정확하게 자연계를 이해해 나가는
完成し、正確に自然界を理解していく

것이지만, 아직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ことだが、まだその状態に到達するまでには

많은 여정이 남아 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たくさんの旅程が残っている。まだ行くべき道は遠い

과학에는 끝없는 논쟁과 수정, 그에 따른 발전,
科学には、終わりなき論戦と修正、それにつづく発展

그리고 괴로운 재평가와 혁명적인
そして、辛い再評価と、革命的

통찰력이 항상 필요하다.
洞察力がいつも重要だ

- 칼 세이건, 앤 드루안의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중에서 -
- カール・セーガン、アン・ドルーヤンの〈忘れ去られた先祖の影〉より -

* 과학도 결국은
* 科学も結局は

인간의 지적 소산입니다.
人間の知的所産です

인간이 완전할 수 없듯이 과학도 완전할 수
人間が完全にできないように、科学も完全に

없습니다. 늘 미완성 상태입니다. 미완성임을
できません。常に未完成の状態です。未完成を

받아들이는 겸손과 자기성찰이 필요합니다.
受け入れる、謙遜と、自己省察が必要です

끝없는 논쟁과 수정, 괴로운 재평가,
終わりなき論戦と修正、辛い再評価が

혁명적인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革命的な洞察力を要求します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니다.
今も行くべき道は遠いです

축적 (蓄積)

[명사] 蓄積.

여정 (旅程)

[명사] 旅程.

재평가 (再評價)

[명사]

再評価; 評価しなおすこと.

자산 (資産) 재평가의 준말

조상 (弔喪)

[명사] 弔問; 弔い; お悔やみ.

그림자

[명사]

影.

(그늘) 影法師.

(거울 따위에 비친) (鏡や水面に映った物体の)...

소산 (所産)

[명사] (소산물의 준말) 所産.

2014년 4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

어찌 엄마아빠뿐이겠습니까
どうして、両親だけでしょうか？

오늘도 저 남녘 앞바다 화면 앞에 있습니다
今日も、あの南方沖合の画面の前にいます

아무리 땅을 친들
いくら汗を流したところで

땅을 쳐
汗を流して

피멍들 손바닥뿐인들
青あざの手のひらだけで

내 새끼의 환한 얼굴이 달려올 리 없건만
私のこの明るい顔が駆けつけるはずがなかったが

밤 지새울
夜を明かして

멍한 아침바다를 바라봅니다
ぼんやりした朝の海を眺めます

어찌 엄마아빠뿐이겠습니까
どうして、両親だけでしょうか？

내 새끼야
わが子よ

내 새끼야
わが子よ

내 새끼들아
我が子たちよ

- 고은의 <이름짓지 못한 시> 중에서 -
- コウンの<名もなき詩>より -

* 온 나라가
* 全ての国が

울음바다입니다.
涙の海です

온 천지가 통곡의 바다입니다.
全ての天地が慟哭の海です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내 새끼들아!
我が子よ! 我が子よ! 我が子たちよ!

어찌 엄마아빠뿐이겠습니까
どうして、両親だけでしょうか？

이 땅에서 숨쉬는 모든 이,
この地で、生けるすべてのもの

모든 사람의 가슴에
全ての人のが

피멍울이 듭니다.
青あざになります

남녘 (南一)
[명사] 南の方; 南方.

앞바다
[명사] 沖; 沖合. (→ 먼 바다)

화면 (畫面)
[명사] 画面.

피멍
[명사]
(皮下組織の) 青あざ.
(ひゆ的に) 心の深い傷.

손바닥
[명사] 手のひら; 掌; 手の内; 平手; 手の裏. =수...

환하다
[형용사]
明るい.
広広としている; (前方が) ぱっと開けている; 見通(み...
(中身や織り目などが) 透けて見える.

달려오다
[자동사] [타동사] 急いで[走って]来る; 駆けつける; はせ着ける. (=뛰어오다)
戸外で夜を明かす 발음 재생 (표제어: 밖)

밖에서 밤을 지새우다
멍하다
[형용사] ぼやっとしている; ぼんやりしている.

천지 (天池)
[명사] [지리] 天池(白頭山の頂上にある大...

통곡 (慟哭)
[명사] 慟哭; 大きな声をあげて悲しく泣くこと.

2014년 5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

천둥번개
雷と稲妻

내 주변 사람들과
私の周りの人々と

나 자신의 불안을 치유할 약이
私自身の不安を治癒する薬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연이었다.
一つあったが、それがまさに自然だった

자연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자연은
自然は私に何も問わなかった。自然は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 숨김없이 진실했고,
ただその場にあった。隠さず真実だった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다. 자연은 내게
なにも問い詰めなかった。自然は私に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何も期待せず、何も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존재할 수
判断せず、ただ存在できるように

있게 해주었다.
してくれた

- 기 코르노의 《생의 마지막 순간, 나는 학생이 되었다》 중에서 -
- キ・コルノの〈生の終わりの瞬間、私は学生になった〉より -

* 자연은 그대로입니다.
* 自然はそのままです

자연 그대로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自然はそのまま、いつも我々のそばに存在します

아무 말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何もしゃべらず、我々の体と心を治癒してくれます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면
言葉はないが、しかし人間が自然を逆らえば

무섭게 돌변해 천둥번개를 칩니다.
恐ろしく急変し、雷と稲妻を打ちます

사나운 채찍으로 바뀝니다.
荒い鞭に変わります

천둥
[명사][←천동(天動)] 雷; 이카즈치[아어(雅語)]; ごろごろ[유아어]. (=우레)...
번개

[명사]

[물리] 稲光; 稲妻[아어(雅語)]; 光り物[속어]; ...
(ひゆ的に) 動作がす早く機敏な人[こと].

숨김없이

[부사] 隠し立てせず(に); 隠さず(に); ありのままに.

진실 (眞實)

[명사] 眞実; 本当; まこと; 誠実.

とう [問う] 발음 재생 중요

3. (책임·잘못 따위를) 밝혀 따지다; 캐다; 문초하다. 4. 문제 삼다. 5. 문상하다; 조상...

거스르다

[타동사]

(거역) 逆らう.

(방향·세에) 反対の方向を取る; 逆らう.

(순리를) 反する; 外れる(벗어나다).

돌변 (突變)

[명사] 急変.

사납다

[형용사]

(성질·모습 등이) 荒い; 荒荒しい; 荒っぽい; 猛猛(...

悪い.

(운수 등이) (運·縁起などが)よくない.

채찍

[명사] 鞭. [준말] 채.

2014년 5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

중심
中心

불안함의 내적 요인은
不安の内的要因は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自分自身に信頼がなく

외적 요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外的要因なら、他人に信頼が

없는 것이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ないのだ。私が私を信頼すれば

자기실현을 하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自己実現をしながら、人生を意味あるように

목적 있게, 불안 같은 노이로제
目的があるように、不安のようなノイローゼの

고통 없이 살 수 있다.
苦痛もなく生きることができる

- 김정일의 《나도 내가 궁금하다》 중에서 -
- キムジョンイルの<私も私が気になる>より -

* '중심'을 잃으면
* '中心'を失えば

몸의 좌우가 흔들리게 됩니다.
体の左右が揺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그 중심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その中心に、おもりが積まれなければ

상하좌우 온 몸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上下左右の全身全体が揺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중심을 잡아주고, 중심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中心を取って、中心におもりを置いてあげることが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まさに'信頼'です。自分自身についての信頼

그 믿음의 닻이 중심을 잡아 주어
その信頼の怒りが中心をつかんでくれて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不安から脱出するようにします

실리다
[자동사] ['실다' の受け身] 載せられる; 積まれる; 載る.
[타동사] ['실다' の使役] 掲載させる; 積ませる; 載せる; 上(の...)

20140502. txt

맞
[명사] 錨; アンカー.

2014년 5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한층섭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ハン・チョンソプ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상처는 희망이 되어
傷は希望になって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青葉にも傷がある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花びらにも傷がある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私とともに歩いた野道を歩けば、

들길에 앉아 저녁노을
野道に座って夕焼けを

바라보면
眺めれば

상처 많은 풀잎들이
傷が多い、多くの青葉が

손을 흔든다
手を振る

상처 많은 꽃잎들이
傷が多い花びらが

가장 향기롭다
一番かぐわしい

- 정호승의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중에서 -
- チョン・ホスンの〈あなたを愛してごめん〉より -

* 상처를 상처인 줄 모르고
* 傷が傷であることをわからず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生きていく人人がたくさんいます

상처가 주는 아픔의 여유도 없이 숨 가쁘게
傷が与える痛さの余裕もなく、息苦しく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마다 말 못하는 저마다의
生きてきたのです。人ごとに話せない、それぞれの

깊은 상처를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深い傷を、秘めて生きています

그러나 그 상처는 반드시 아물고 새살이
しかしその傷は、必ず癒えて肉に

나올 것입니다. 상처 입은 꽃잎이
なります。傷を負った花びらが

더 향기롭듯이...
かぐわしいように...

풀잎

[명사] 草の葉; 草葉.

들길

[명사] 野道; 野路[아어(雅語)].

저녁노을

[명사] 夕焼け; 夕映え. [준말] 저녁놀.

가쁘다

[형용사] (벅차다) 手に余って苦しい; (숨이) 息苦しい.

저마다

[부사] 人ごとに; 人人が皆; 口口に; おのおの.

[명사] おのおの; 各自; それぞれ.

간직하다

[타동사]

(물건을) (大切に)しまっておく; (大切に)保管する.

(모습을) (面影・様子を)とどめる; 保持する; 維持...

(가슴속에) (胸[心]に)秘める.

아물다

[자동사] (傷・おできの跡が)いえる; 直る.

새살

[명사] 肉芽(組織).